

한국 내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 연구*

정지현** · 김영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에 나타난 재현방식과 차별문제를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 소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소수자 되기'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과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동남아시아계 유학생 6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를 경험한 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체노포비아 조장', '수혜자 삶 클로즈업', '지배적 담론의 순응 강요', 둘째,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서 '저항적 주제', '정체성의 정치', '능동적 구성원'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수자가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소수자 되기 과정 즉, 소수자 미디어교육의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소수자 미디어, 미디어재현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제1저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들어가기

한국은 2019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의 수가 2,430,589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선주민 다수자들은 이주민과의 접촉 기회 및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와 언론 등 탑다운(Top-down) 방식의 계몽에 의하여(정의철, 2011)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 내의 이주민들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화,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 소수자들의 이미지가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집단으로 고착화되고 주변화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재현들은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에 의한 타자의 재현방식은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적 인식 등에 의해 재생산된다. 주류 미디어의 재현방식은 이러한 다수자의 관념에 의해 정형화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재현은 이주민의 시각과는 별개이며 다수자의 측면에서 주류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정의철, 정용복, 2016).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재현방식은 미디어가 다수자-소수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수자의 삶 자체에 대한 묘사에 중점을 둬으로써 이들을 시혜적·동정적 시각으로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엄한진, 2011). 특히 저출산 대책 및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근로자가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 재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소수자(minority)는 다수자(majority)의 개념에 대비되는 수의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나 집합적 정체성의 유무로 규정한다(설동훈, 2009). 그러한 관점에서 소수자는 사회적 불평등 상황에 놓여있지만 주류집단의 권력에 예속되거나 동일화되지 않는 차이의 힘과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는 주체들(강진숙 공저, 2018)을 의미한다.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미디어는 주변화된 그룹의 대변자로 다양성을 촉진하고 소수자의 시각으로 이슈를 묘사할 수 있다(Georgiou, 2005).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는 미디어의 배치를 소수자의 코드로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미디어의 공간에 소수자의 이미지, 소수자의 언어, 소수자의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소수자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보다 진화된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한국언론정보학회, 2006)이다.

소수자 미디어(minority media)는 이주민들의 생활세계를 드러내고 이주민 간 혹은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Sreberny, 2005) 이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소수자 미디어는 이주민들의 소통과 적응, 통합, 연대의 기제가 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는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시각과 목소리로 다수자-소수자 간의 이슈나 생활세계의 다양성을 전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의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는 이러한 실천적 역할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가 실천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수자 중심의 주류 미디어가 소수자를 대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달라지기를 배우고 함께 변해가고 다 같이 어울려가는 과정에 ‘소수자 되기(Deleuze & Guattari, 1980/2001)’를 지원하는 사회적 실천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소수자 되기를 지원하는 일은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가 소수자들에게 주류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인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가 다수자적 시선을 교정함으로써 소수자들이 다수자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과 차별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가 선주민 다수자와 이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중심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이주민의 소수자 되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전파하는 본래의 역할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류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 방식에 대하여 한국 사회 내 소수자인 동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통해 아래로부터 목소리를 내는 장을 제공하고, 소수자 미디어에 나타난 재현방식과 차별문제를 파악하여 소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소수자 미디어재현에 관한 선행연구

미디어는 인종, 민족, 국가, 집단 등과 같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동성에 영향을 주기

도 하지만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 및 배제와 주변화를 규정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다(Silverstone & Georgiou, 2005).

이에 주류미디어는 소수자가 지닌 다양성이나 관점을 배제하고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구조 안에서 획일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집단 인식과 해석의 틀(a collective frame of interpretation)로 작용될 수 있다(Bourdieu, 1998; Williams, 1982).

실제 한국의 주류미디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범죄를 양산하는 집단 혹은 불법이라는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저출산 대책 및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관점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엄한진, 2011). 또한 이주민을 타자화(othering)하고 주변화하는 등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내용을 재생산함으로써 반이민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류미디어가 생산하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재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자세히 고찰해보면, 주류미디어에 이주민 소수자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미디어를 분석한 연구(김경희, 2009; 원숙경, 2014; 박미경, 이현율, 2017; 김초희, 김도연, 2018), 주류미디어에 이주민 소수자가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재현방식을 제시한 연구(김경희, 2011; 정의철, 2011; 허찬행, 심영섭, 2015; 주재원, 2016), 그리고 이주민 소수자를 대상별로 나누어 재현되는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류찬열, 2010; 박명진, 2011; 이명현, 2010; 권금상, 2013)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화, TV, 드라마, 다큐,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이주민 소수자 재현방식을 진단한 연구는 2000~2008년까지 KBS·MBC·SBS·YTN 등 텔레비전에서 소수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소수자에 대한 재현방식이 이분법적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선, 정형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경희, 2009), 우리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관찰한 영화 <방가?방가!>와 <완득이>를 중심으로 미디어에 의한 소수자재현 사례를 분석하여 미디어가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이데올로기화 하는지를 조명한 연구(원숙경, 2014).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를 조명하기 위하여 KBS <이웃집 찰스>를 통하여 새로운 이주민의 미디어재현 방식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박미경, 이현율, 2017),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텔레비전의 다문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과 이주 유형별 재현율, 장르에 따른 집단별 재현 정도의 차이,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 연구(김초희, 김도연, 2018) 등이 진행되었다.

둘째, 미디어에서 이주민 소수자가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재현방식을 제시한 연구는 휴먼다큐멘터리 이주민 소수자재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게시글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사회와 배치되는 수용자의 인식을 발견하고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인과 다른 이방인으로 분리되어 재현되고 있는 혈통주의 및 동화주의 인식을 지적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김경희, 201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주민방송: MWTV>의 등장 배경과 제작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주민방송에 대한 참여적 대안미디어로서의 시각을 진단하고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주체적인 소수자 재현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정의철, 201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텔레비전의 재현방식이 동화주의적이며 다름을 문화적 열등감으로 표현하거나 편견을 양산한다는 FGI 분석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방송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허찬행, 심영섭, 2015), 지상파 방송사들의 뉴스 콘텐츠에 나타난 영상담론을 분석하여 담론화하고 이들의 이주민 재현 양식이 한국인들과의 이항대립을 이루어 스테레오타입을 확대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재현 양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주재원, 2016) 등이 이루어졌다.

셋째, 이주민 소수자를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한 연구에는 이주노동자의 재현 연구(류찬열, 2010; 박명진, 2011)와 결혼이주여성의 재현 연구(이명현, 2010; 권금상, 2013) 등이 있었다. 류찬열(2010)과 박명진(2011)은 영화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주로 공장이나 소외된 장소에서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는 관점에 출발하여 이들에 대한 타자성의 존중이라는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명현(2010)은 농촌드라마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타자성을 획득하기보다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에 의해 남성으로부터 정의되는 여성으로서 이미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권금상(2013)은 소수자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을 시혜의 대상이자 타자화된 집단으로 낙인찍는 차별적 제작기법과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위계적이고 불리한 위치를 공고히 하여 주변인물로 고정화 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부각시킴으로써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이항대립적인 관계를 강조하여 사회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주류미디어가 생산하는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 방식 및 시사점에 대하여 다양한 미디어 사례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소수자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미디어 소수자 중에서 유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미디어 경험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소수자 되기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수성과 소수성은 양적 차이가 아니라 상태나 표준의 규정과 같은 질적 차이를 지닌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즉 다수성은 지배 권력의 상태나 사회적 통념의 표준으로 작동하는 ‘-이다’라는 권력이 이미 주어진 ‘고정된/자명한 존재’이다(강진숙, 배민영, 2010). 반면 소수성은 지배 권력의 상태나 표준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다양한 ‘-되기’를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 위의 존재’이다. 이러한 소수성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관습, 그리고 다수성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되기’의 과정을 행하는 주체가 될 때 형성되며(강진숙, 2012), 이러한 과정이 ‘소수자 되기’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이 연구가 이주민의 ‘소수자 되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주민이 참여하는 소수자 미디어는 자신들이 주변화된 그룹의 대변자로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인권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지지하고(Georgiou, 2005), 시혜의 대상에서 연대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 자기 표현(speaking in one's own voice)과 담론 형성 및 자기강화(self-empowerment)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ilva, 2009).

이주민이 참여하는 소수자 미디어는 소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Sreberny, 2005), 인정 투쟁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장미경, 2005). 이들은 주류 사회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대항적 방법(counter hegemonic ways of seeing)을 통해 주류사회가 재현하는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Sreberny, 2005).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은 이주민 소수자는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서 ‘소수자 되기’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소수자 되기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시켜 소수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주민의 ‘소수자 되기’는 소수자를 배제하고 특수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주류미디어의 소수자 재현방식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소수자 되기’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수자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미디어 생산 기회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주민의 ‘소수자 되기’의 과정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체제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소수자가 지닌 특성을 상호 인정하고 잠재적인 역량을 주체적인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가능해진다. 이는 이주민 소수자가 주류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하여 다수자가 만든 자신들에 대한 통념과 상식, 그리

고 다수자의 권력이 만든 부정적인 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리터러시(literacy)는 언어체계를 기반으로 읽고 쓸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전 지구를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미지와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소통 도구에 대한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Broderick, 2014). 이는 21세기의 소통의 도구가 더 이상 언어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Kern, 2006; Kress, 2000).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 지식과 비평, 그리고 해독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디어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미디어의 주체적 이용 능력,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독과 분석 능력, 미디어의 창조적 활용과 표현 능력,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을 포함한다(전경란, 2009). 즉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평가하고 제작하며 이를 통해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Hobbs & Moore, 2013).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대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창조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장은영, 2017). 이제 소수자는 단순한 미디어 수용자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의 생산과 변혁의 주체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류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차별 기제로 작동하는 미디어 기능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이며 주체적인 역량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Critical Media Literacy)는 미디어 텍스트를 사회적 산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Kellner & Share, 2007). 또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미디어 텍스트에 재현되거나 담론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역학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수자들에게 다양한 갈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류사회를 이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자문화 우월주의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 성찰과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 약자를 넘어 다문화적 지식, 기능, 가치를 획득한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통하여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에 나타난 재현방식과 차별문제를 파악하고,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서 소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 방식을 파악하고 소수자의 미디어재현과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미디어(TV, 영화, 인터넷 등)의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크게 두 범주,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재현과 차별문제, 그리고 미디어의 이주민 소수자 재현방식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반구조화 방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총 6명의 동남아시아계 유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평소 미디어에 대해 관심이 많고 토픽 3급 이상을 소지한 한국어가 능숙한 유학생들에 근거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 유학생 3명, 캄보디아 유학생 2명, 그리고 필리핀 유학생 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사례	출신국	연령	성별	소속	전공	토픽	이용하는 미디어/ 관심 영역
1	베트남	31	여	박사과정	다문화교육	6급	인터넷/ 뉴스
2	베트남	31	여	박사과정	한국어교육	6급	인터넷/ 유튜브
3	베트남	26	여	석사과정	한국어교육	4급	인터넷/ 영화
4	캄보디아	23	여	학부과정	건축공학	4급	인터넷/ 다큐
5	캄보디아	22	남	학부과정	정보통신	3급	인터넷/ 드라마
6	필리핀	24	남	학부과정	언론정보	3급	인터넷/ 뉴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표 2>와 같이 스스로 미디어를 선정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미디어를 시청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크게 두 범주,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 방식, 그리고 이주민 소수자의 미디어재현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반구조화 방법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2> 국가별 미디어 자료

국가	미디어 자료
베트남	이주민가족 고국방문,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 이야기, 영화 ‘안녕 투이’ 등
캄보디아	캄보디아 근로자가족 재회,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의료봉사단 출정, 다큐 오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 등
필리핀	5년째 재능 나뉘요, 다문화 고부열전, 상생과 평화 코리안 메시지, 필리핀 톤도 쓰레 기마을에서 전해지는 감동 이야기,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 등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시청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한 인터뷰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자의 관점으로부터 의미 단위를 분류하였다. 의미 단위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을 맥락적으로 연결하면서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 연구자의 생각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적절한 분석과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분석한 텍스트는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 1인, 다문화교육 전공 박사 2인이 연구자와 함께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을 거치면서 질적연구 과정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넷째 주에 연구자가 작성한 질적분석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내용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정확하고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답메일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 분석 결과

관점 분류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	제노포비아 조장	·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미디어가 편견을 만들고 있어요. · 국가를 강조하는 범죄 보도! 한국에서 뉴스 안 보고 싶어요.
	수혜자 삶 클로즈업	·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어요. · 한국의 위상만을 강조하려고 어두운 곳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지배적 담론의 순용 강요	· 배려는 감사하지만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면 안 돼요. ·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열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	저항적 주제	· 오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찾아내서 반박하고 싶어요. · 팩트가 아닌 글을 보면 댓글을 달거나 폐북에 올려요.
	정체성의 정치	· 외국인이 아닌 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를 드러내고 있어요. · 한국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외국인 롤 모델이 될 거예요.
	능동적 구성원	·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요. · 제 꿈을 꼭 이루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거예요.

IV.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의 의미

1.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

1) 제노포비아 조장

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미디어가 편견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우리나라도 된장녀가 많고 그렇긴 한데(웃음),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그게 편견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 여성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미디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구 참여자 1)

“근데 딱 보면 갈등 상황을 드러내려고 편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미디어에서 그런 거를 자주 노출하게 되면 한국 사람한테 그런 인식이 일반화가 되잖아요. 물론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인기나 시청률을 높이려는 제작자의 입장은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한국에 와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돈, 돈, 돈 하면서 남편이나 시부모님 간에 갈등만 만드는 것 같잖아요.”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1과 2는 한국 내 공영방송에서 이주민 소수자를 재현하는 다큐 프로그램들이 방송 제작자가 의도하는 상황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편집함으로써 편협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실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제작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삶의 단편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시청하는 다수 시청자들에게 편견 의식 혹은 인식의 일반화를 조장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② 국가를 강조하는 범죄 보도! 한국에서 뉴스 안 보고 싶어요.

“부산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싸우는 거, 우리도 우리 국민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 근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첫 장면에 우리나라 국기를 크게 보여주면서 우리 국가가 문제가 많고 근로자는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싸우는 거 진짜 안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국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 뉴스 앞에 나라 국기를 보여주는 거 ...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연구 참여자 4)

“한국인 피살 사건 있을 때 (중략)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한 명 매수하는 게 엄청 싸고 쉽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중략) 하지만 사건의 정황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본질보다는 세상의 모든 범죄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서, 텀플할 때 학생들도 우리를 피하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모두 범죄 뉴스여서 진짜 안 보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4와 6은 이주민 소수자를 재현하는 한국의 뉴스가 공정한 내용 전달에 주목하기보다는 출신국가를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결혼이주민으로서, 근로자로서, 유학생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소수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가 잘못된 이미지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어 제노포비아 조장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미디어가 선주민 다수자들에게 외국인을 혐오하는 인식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노포비아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고정관념 등을 형성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수혜자 삶 클로즈업

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심장 수술 의료 봉사, 제가 한국에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중략) 우리나라에는 의술이 아직 한국만큼 좋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해외봉사 많이 나가요. 한국처럼 의료 봉사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교육 봉사도 한 적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 3)

“우리나라에도 화장실에 손 말리는 기계가 있고, 백화점 같은 곳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뉴스를 보여주면서 막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시골 같은 곳에는 없는 거 맞지만 우리나라에도 한국처럼 좋은 시설 많이 있고 (중략) 한국이 우리나라 농촌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받기만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3과 5는 한국의 미디어가 자신들의 출신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약소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보도 내용을 비판하였다. 유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수혜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열등한 국가로 강조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전쟁 이후 물질적인 지원 대상국이었던 시절 한국의 다수자들이 느꼈을 감정과 동일할 것이다.

② 한국의 위상만을 강조하려고 어두운 곳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잘 분리배출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는 쓰레기가 동네 전체에 가득하고 ... 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쓰레기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아세요? 며칠 후에 그 쓰레기가 한국에서 보낸 거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략) 뉴스가 한국의 좋은 점을 강조하려고 다른 나라의 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쓰레기 문제도 한국이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연구 참여자 1)

“2017년에 방송된 <미우나 고우나> 드라마에 동남아시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들어 살면서 한 푼 두 푼 잔돈까지 모으고, 가정부로 일하면서 혼자서 딸을 키우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 (중략)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주 낮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여우각시별> 드라마에서 외국인 배우가 까메오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나면 불법체류자예요 ... (후략)"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1과 6은 한국의 미디어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과 한류 문화에 힘입어 세계 속에서 위상을 얻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지식,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면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연결성을 고려해보면 미디어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민 유입이 이루어지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민 송출의 역사 및 경제적 수혜국으로서의 역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의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자부심에 근거한 자문화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이주민 소수자의 삶을 수혜자의 삶으로만 클로즈업 시키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미디어는 뉴스 소재나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의 배경 국가 및 이주민 소수자에 대하여 이들의 입장에서 재현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배적 담론의 순응 강요

① 배려는 감사하지만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다큐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천사같이 착하시고 우아하시고 돈도 책임져 주시고 항상 며느리를 배려하시고... 시어머니에 대하여 너무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해설자도 시어머니 입장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 쇼파도 너무 좋은 거~ 침대도 너무~ 이렇게 비싼 거를 차려주셨네요. 아,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며느리는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집안일만 잘하면 되는데, 매일 취직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3)

“근로자가 여자니까 사장님이 특별한 숙소를 주고 특별히 배려해주는 거, 네, 배려하는 거 맞아요. 그 근로자 관점에서는 진짜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와, 사장님이 여자를 배려해줘서 진짜 고맙겠지만, 우리가 보면 사장님이 그거 여자에게 왜 적당한 숙소를 주지 않고 창고를 줘요? 창고를 주면서 많이 배려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회사 일만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국인 근로자라면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숙소를 줬을까요? 거기에서 자면서 일만 잘하라고 했을까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3과 5는 한국의 미디어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일 혹은 생활력에 대한

문제는 간과된 채 시어머니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시각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회사에서도 이주민 소수자에게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된 순종적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형화시키고 있다.

②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열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한국말을 잘하는 서구쪽에서 온 사람들은 좋은 배역을 맡아서 착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역할이나 노동자 역할로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서구쪽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에서 인기 있는 외국인을 보면 다 피부색깔이 밝고 행동도 거의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그런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한국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행동이 따로 있어요.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서로 항상 느끼고 있어요. 김치를 잘 먹고, 막걸리를 잘 마시고 ... 제작진들도 그런 사람만 출연을 시키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 문화를 굳이 버리고 한국 문화만 따라야 한다는 이유가 없는데도, 웬지 한국 사람들처럼 안 하면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서 못 배워서 그렇다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좀 불편해요.”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2와 4는 미디어가 소수자들에게 수동적인 이미지를 고정관념화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다수 다규 프로그램들이 이주민 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문화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한국 사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미디어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저개발국이라는 이미지를 전제하고 서구 쪽 출연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역할을 동남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을 통해 효부가정, 모범가정, 성실한 가정 등과 같은 모습으로 한국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미디어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배제한 채 다수자의 암묵적이고 지배적인 논리를 통해 한국의 지배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소수자들에게 주류사회의 지배 담론에 순응하도록 사회화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

1) 저항적 주체

① 오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찾아내서 반박하고 싶어요.

“그 영상은 여성을 물건처럼 상품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는 돈만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돈을 좋아하고, (중략) 그거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가 한국이나 외국인에 동경심이 강하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도 외국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디에도 검증된 것이 없는데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 정말 안 돼요. 진짜 답답해요.” (연구 참여자 3)

“우리나라 가정생활 문화, 그거 과거 이야기예요. 18살에 결혼한다, 교육 환경이 안 좋다.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없다. 교과서도 없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족제도만 보아도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 요즘은 부부끼리만 살아요. 결혼하는 나이도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교육 받고 직업도 얻어서 집도 있고, 이거 한국 정부에서 만든 자료지만 (중략) 제가 오래된 자료를 다 찾아내서 뭐가 잘못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3과 4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소수자 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오래되었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보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미디어가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거나 과거 또는 일부 지방의 일을 일반화시켜 이주민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차별하고 특별한 대상으로 낙인 찍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이다.

② 팩트가 아닌 글을 보면 댓글을 달거나 폐북에 올려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아니면 방송하기 전에 그 나라 사람에게 내용 확인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중략) 저는 이런 글 읽으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바른 정보를 써 주거나 아니면 그 나라 사람에게 직접 확인해라. 이렇게 글을 써요. 방송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한 후에 영상을 만들어야 해요. 자기 경험만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안 돼요. 모르면 우리가 쓴 댓글 같은 거라도 읽어보면 도움 받을 수 있는데 ... (후략) (연구 참여자 1)

“나쁜 일을 드러내면 좋은 일도 찾아서 같이 강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크게 만든다고 한국 사회에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외국인과 한국인, 차이나 갈등만 커지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끼리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게 하는 게 미디어의 역할인데, 저는 이런 글 보면 참지 못하고 미디어가 사회를 위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려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1과 5는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가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본질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수정하는 댓글을 다는 등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해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넘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디어 약자를 넘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수자의 낙인과 불평등에 대하여 대항주체로서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박경환, 2008). 주류사회는 소수자가 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수자 속의 저항적 소수자로서 주체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2) 정체성의 정치

① 외국인이 아닌 척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를 드러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있냐? 이런 것 먹어 봤냐? 그 말 속에는 부자 나라에 왔으니까 행복하지? 여기에 차별 의미가 있어요. 다큐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 생각이 비슷해요. 한국 학생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 얼굴이 아주 외국인처럼 아니니까 그냥 한국인처럼 하고 있어요. (중략)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이다. 말해요. 제가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 참여자 2)

“한국 미디어에는 외국인들을 세 유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백인이나 백인계 혼혈인은 동경집단으로 특히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서구인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국가 사람들은 친숙한 근접집단의 이미지로, 하지만 저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항상 도와줘야 되는 동정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식되는 게 싫어서 외국인이 아닌 척했어요. (중략) 지금은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를 보고 한국사람 생각이 바뀌면 그거 바람이에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2와 6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가 차별적 언어를 내포하고 있는 다큐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국가 혹은 인종에 따라 외국인들을 유형화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인종적으로 소수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미디어로 인하여 자신들도 유형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출신 국가 배경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로의 적응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서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② 한국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외국인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업 과제 팀플 같은 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그럴까 봐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식당이나 어디에 가서도 더 예의 있게 인사해요. 뉴스에서 보는 외국 사람들하고 다르네,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요. (중략) 유학생들도 저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4)

“미디어에서 특히 동남아 쪽을 묘사하는 방식은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니 한국 사람들은 뭐 백인에게 막 환호하고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그와 반대로 하잖아요? (중략) 저는 한국에서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금방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팩트를 담은 한 명의 목소리라도 내야 해서요. 제가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싶고, 동남아 사람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싶고 그래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4와 6은 미디어가 한국인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하여 고정된 이미지와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음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미디어의 사실적이며 공정한 실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의 왜곡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행동과 작은 실천을 통하여 국제 이주 배경을 지닌 이주민 소수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이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다수자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소수자의 정체성의 정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회복하고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소수자들은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결속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소수자가 지닌 정체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실천적 활동을 지향하고자 하는 믿음을 지지해야 한다.

3) 능동적 구성원

①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뉴스랑 영상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구나. 하지만 ... (중략) 한국 사람들에게는 언론,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창인데 ... 사실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제작했음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방송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부터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돼요. (중략) 우리 외국인들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말고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해야겠어요.” (연구 참여자 2)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느 나라의 무엇을 제작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처럼 한국에 와 있는 사람 많잖아요. 검증을 받아서 방송해야 돼요. (중략)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모든 내용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할 생각 갖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2와 5는 미디어가 이주민 소수자를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인 대상으로 재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를 제작하고 시청하는 다수자의 무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작자와 시청자의 비판적 의식을 요구하였으며, 스스로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소수자 되기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다수자가 만든 주류 미디어의 지배적 통념이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사실성을 대변할 수 있는 능동적 구성원이 되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삶을 통해 다수자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수자의 차이 그 자체를 인식하고 다수자와 공존하고자 하는 힘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제 꿈을 이루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뉴스를 고르거나 드라마에 역할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돼요. (중략) 한국 미디어의 시청 범위가 이제는 전세계이고, 정말 중요해졌어요. 요즘은 외국인도 많이 출연하지만 양념처럼 게스트로만이 아니라 전문 방송인으로도 편견 없이 채용해서 긍정적으로 소수자를 재현해야 해요. 저는 그런 역할에 힘을 더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걸 보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3)

“자스민 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그냥 딱 다문화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다문화가족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중략) 저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튼 제 꿈을 이루어 미디어가 다문화가족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니까 미래 한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중략) 그 꿈을 이루면 진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좋은 이야기도 많이 발굴해서 보여줄 거예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3과 6은 한국의 미디어가 한국 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디어가 지금까지 다수자의 입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예로 들었다. 즉 외국인 출연 방식에 있어서 시청률을 위한 양념 같은 존재인 까메오 출연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리드하는 중심 주체로서의 출연이 되어야 하며, 소재 선정이나 소재 발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미디어는 소수자를 다수자와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주변인의 자리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며 다수자와 소수자의 삶의 비중과 의미가 균형 있게 묘사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이주민 소수자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여 미디어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긍정적이며 주체적인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의 주체적 삶이 정주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한 기회로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발굴하고 표현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수자가 미디어의 수용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수자 되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수자들이 직접 미디어 제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소수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동남아시아계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통하여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에 나타난 재현방식과 차별문제를 파악하고 소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재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제노포비아 조장', '수혜자 삶 클로즈업', '지배적 담론의 순응 강요', 둘째,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에서 '저항적 주체', '정체성의 정치', '능동적 구성원'이라는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재현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다수자의 지배적 논리에 순응을 요구하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재생산하여 고정관념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미디어가 주류문화의 획일화된 관점을 수용하여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수자와 소수자를 우리와 타자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재현의 문제는 주류미디어의 접근에서 배제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소수자 집단의 일상 생활세계의 목소리가 참여를 통하여 사실적이며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즉 소수자들의 생활세계가 진정성 있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나 이슈나 그들의 권리가 아래로부터(bottom-up) 표현될 수 있도록 다수자와 소통하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수자는 참여의 장에서 다수자가 함께 어울려서 다수자와 함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서로에게 배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정관념에 맞서서 변화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 다문화사회로서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참여, 즉 소수자를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교육은 소수자 되기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소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타자화 되고 주변화 되어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수자 되기는 자신들이 수혜자나 수동적인 존재로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의 담론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다수자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주체로서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민 소수자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수자가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소수자 되기 과정 즉, 소수자 미디어교육의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진숙(2012),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공저)』, 한국언론학회.
- 강진숙·배민영(2010), “‘소수자 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연구 - 노인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6(1):255-280.
- 강진숙·조재희·김지연(2018), 『미디어 소수자(미디어약자)를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연구(공저)』, 한국언론학회.
- 권금상(2008), “미디어에 재현되는 이주아동에 관한 연구: 영상물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형식·내용·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3(2):31~78.
-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 뉴스초점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7-46.
- 김경희(2011),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게시판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4):5-42.
- 김초희·김도연(2018), “한국 다문화 TV 프로그램에서의 이주민·외국인 재현”, 『韓國 言論學報』, 62(3):309-341.
- 류찬열(2010), “200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양상 연구 - <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137-152.
- 박명진(2011), “한국 영화의 공간성과 인종 재현 현상 - 이주노동자 소재 영화 <바리케이트>와 <반두비>의 경우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46:295-327.
- 박미경·이현율(2017), “가족주의 관점에서 본 KBS<이웃집 찰스>의 이주민 가족 재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12-24.
- 설동훈(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한 사회학 설명”, 『사립』, 34:53-77.
- 엄한진(2011), 『다문화 사회론: 이민과 다문화 상에 한 성찰 입문서』, 서울: 소화.
- 원숙경(2014),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된 이주민: 영화 <방가?방가!>와 <완득이>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1):109-134.
- 이명현(2010), “농촌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에 재현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8:153~177.
- 장미경(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韓國社會學』, 39(6):159-182.
- 장은영(2017), “다문화 시대, 비판적 미디어 리더러시의 교육적 함의에 대해”, 『다문화교육연구』, 10(4):1-25.
- 전경란(2009),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매체미학적 특징과 개발 과제: 양방향 콘텐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5): 55-77.
- 정의철(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미디어 - <이주민방송>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4):489-526.
- 정의철·정용복(2016).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60(4), 39-67.
- 주채원(2016), “미메시스로서의 ‘타자’와 디에게시스로서의 ‘다문화’: 지상파 방송 뉴스에 재현된 이주민들의 영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503-514.

- 한국언론정보학회(2006),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주: 한울아카데미.
- 허찬행·심영섭(2015), “TV매체가 재현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현실: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1):325-363.
- Broderick, D. (2014), Collaborative design: Participatory culture meets multiliteracies in a high school literacy arts community.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8(3), 198-208.
- Deleuze, G. & Guattari, P.,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Georgiou, M. (2005), Diasporic media across Europe: Multicultural societies and the universalism/particularism continuu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81-498.
- Hobbs, R., & Moore, D. C. (2013), *Discovering media literacy: Teaching digital media and popular culture in elementary school*. Thousand Oaks, CA: CORWIN.
- Kellner, D., & Share, J. (2007), Critical media literacy, democracy, and the reconstruction of education. In D. Macedo & S. R. Steinberg (Eds.), *Media literacy: A reader* (pp. 3-23). New York, NY: Peter Lang Publishing.
- Kern, R. (2006), Perspectives on technology in learning and teaching languages. *TESOL Quarterly*, 40(1):183-210.
- Kress, G. (2000), Multimodality: Challenges to thinking about language, *TESOL Quarterly*, 34(2):337-340.
- Silva, P. D. (2009), Television, public sphere, and minorities. *Media Development*, 56(4):51-55.
- Silverstone, R., & Georgiou, M. (2005), Editorial Introduction: Media and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433-441.
- Sreberny, A. (2005), ‘Not Only, But Also’: Mixedness and med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443-459.
- Williams, R. (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New York: Schocken Books.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 Literacy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ihyeon Jeong · Youngsoon Kim

The study explores the reproducibility and discrimination in migrant minority media through the media literacy experience of students studying abroad. Accordingly, it is to explore alternative direc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typical image re-enactment for minorities. In order to this research, we have explored the related pre-research on media re-enactment of immigrant minority groups.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becoming a minority" and the renovation of critical media literacy as the core elements of exploration, we discussed the critical dimension of minority media and the practical dimension of minority media. Based on this, in-depth interviews of six student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nalyzed their vivid voices at the scene of experiencing migrant minority medi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ssential themes of 'resistance subject', 'politics of identity' and 'active member' were derived from the practical level of 'promoting Genophobia', 'closing of recipient' life', 'force of conformity of dominant discourse' and 'force of conformity' through minority media were derived from the critical dimension of minority media. The research in order to change the re-enactment method of migrants minority media. It is expected that the minorit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inority media education by their words process of becoming a minority in which minorities can authentically reveal the aspirations of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Key words

Foreign Student, Media Literacy, Minority Media, Media Reproduction

논문 투고일	2020. 01. 16
논문 심사일	2020. 02. 11
게재 확정일	2020. 02. 23

정지현 oxy59j@hanmail.net

김영순 kimysoon@inha.ac.kr